

#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주목하는 '도전적 학습'이란?

미국 주요 대학들은 성적만 갖고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도 한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 특정 인종들, 특히 유대인들이 합격생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래서 다트머스대학을 시작으로 이른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됐다. 즉 종합적 평가(Holistic Admissions)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학교 성적(GPA)과 '도전적인 학습'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도전적인 학습'이란 무엇일까?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아이비리그 급 대학들의 학생 선발 평가 기준을 보면 이 도전적인 학습요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은 약 15개 입학 사정 요소를 갖고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학생들의 기록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각 요소마다 'Very Important' (매우 중요), 'Important' (중요), 'Consider' (고려), 'Not Consider' (고려하지 않음) 등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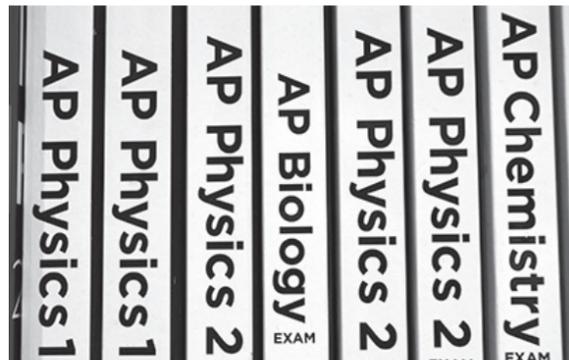
미국의 대학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대학이 어떤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지 밝히고 있다. 하버드, 예일대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요소들은

- ▶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도전적인 학업 기록)
- ▶ Academic GPA(학교 성적)
- ▶ Standardized Tests(표준화 점수)
- ▶ Class Rank(등수)
- ▶ Recommendations(교사 추천서)
- ▶ Essay(에세이)
- ▶ Extracurricular Activities(특별활동 기록)
- ▶ Particular Talent/Ability(타고난 특기)
- ▶ Character/Personal Qualities(인성과 자질) 등이다.

즉 이 9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버드, 예일대학과 프린스턴대학의 평가요소에서 다른 점이라면 프린스턴대학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매우 중요'에서 '중요'로 바꿨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프린스턴에 지원할 학생들은 하버드나 예일대학보다 특별활동에서 다소 소홀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 프린스턴대학은 'Very Important'에서 'Very'라는 단어를 뺐을 뿐 여전히 특별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하버드, 예일대학의 평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 AP-IB 등 난이도가 높은 수업을 소화한 학생에 눈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경우 하버드나 예일 등의 대학과 달리 '도전적 학습' 요소만 '매우 중요함'으로 보고, 다른 대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던 요소들을 '중요함'으로 보고 있다. 반면 MIT는 다른 대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요소들을 '중요함'으로 평가하고 학생의 인성과 자질을 '매우 중요함'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각 대학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예외 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보는 요소가 있다. 바로 '도전적 학습'이다.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몇 학년 때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고등학교마다 개설된 과목과 그 수준이 다르다.



어떤 학교는 AP 과목이 15개 개설돼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달랑 3개만 개설돼 있기도 하다. AP 과목이 많이 개설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목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게 개설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럴 경우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고 좋은 성적을 낸 학생과 학교에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학생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개설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얼마나 수강했는가를 평가한다. 즉, 3과목의 AP가 개설된 학교에서 3과목 모두를 수강하고 5점을 받은 A 학생과 10개의 AP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 3과목의 AP만을 수강하고 5점을 받은 B 학생을 비교했을 때, A 학생이 훨씬 도전적인 학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 입학 사정관들은 학교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보통학교와 IB, 즉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커리큘럼이 개설된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할 때는 어떨까? 미국 대학들의 입학 사정결과를 보면 재미있다. 하버드 등 상위권 대학의 경우 IB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나 일반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AP나 IB, SAT Subject 모두 난이도가 높은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한다. 따라서 IB 과목을 잘 들었다고 해서 가산점이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립대학 등 다소 레벨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IB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합격 확률이 일반 과목을 들은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즉 주립대학들은 상위권 사립대학들이 전인적 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선발 방식을 채택하는 주립대학들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몇만 명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처럼 총체적 평가, 전인적 평가를 할 수 없다. 제한된 수의 입학 사정관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계량화하기 쉬운 GPA와 SAT, ACT 성적을 갖고 평가한다. 또한, 주립대학들 가운데서도 상위권 주립대학들은 에세이라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런 대학들은 몇 개 되지 않는다.

UC 버클리는 도전적인 학습을 했는가와 GPA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또한 에세이와 지원 학생이 캘리포니아 주 학생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